

## 외상성 횡경막 손상

경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교실

김덕실·허동명·전상훈·장봉현·이종태·김규태

경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1980년 1월부터 1995년 7월까지 내원한 외상성 횡경막 손상 환자 44례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외상의 원인은 둔상이 32례, 관통상이 12례였으며 교통사고가 29례로 전체의 66%를 차지하여 교통기관의 발달로 인한 자동차 사고가 외상성 횡경막 손상의 주 원인이었다. 평균연령은 둔상의 경우 37.6세, 관통상의 경우 29.2세로, 둔상의 경우가 평균 8.4세가 높았다( $p < 0.05$ ). 증상은 외상의 종류에 관계없이 호흡곤란이 35례(80%)로 가장 빈번하였으며, 이학적 소견상 호흡음 감소가 38례(86%)로 가장 많았다. 쇼크 상태인 경우가 11례(25%)이었으며, 이들 전례는 둔상성 외상에 기인하였으며 대부분 교통사고가 원인이었다. 둔상의 경우 관통상에 비해 동반된 손상도 다양했고 증상도 심했다. 입원하여 수술하기까지의 평균기간은 둔상시 8.2일인 반면 관통상시 0.2일로서 둔상시 보다 훨씬 짧았다( $p < 0.05$ ).

진단은 단순 흉부 X-선 사진으로 횡경막 손상을 진단한 경우가 둔상에서는 24례(75%), 관통상에서는 4례(33%)였다. 손상 부위는 둔상시 좌측이 18례, 우측이 14례였고, 관통상시는 좌측이 9례, 우측이 3례로 양군에서 모두 좌측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양측은 1례도 없었다. 복부장기의 흉강내로의 탈장은 둔상시 75%(24례), 관통상시 42%(5례)로서 둔상시 더 잘 일어났으며( $p < 0.05$ ) 횡경막 손상의 크기와 탈장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좌측 파열시는 위장이, 우측 파열시는 간장이 가장 흔히 탈장되었다.

수술은 진단 즉시 시행하였으며, 수술시 절개방법은 둔상의 경우 20례(63%)에서 개흉술, 9례에서 개복술, 2례에서 개흉복술, 1례에서 개흉술 및 개복술을 분리 시행하였으며, 관통상시에는 6례(50%)에서 개복술, 4례에서 개흉술, 2례에서 개흉술 및 개복술을 분리 시행하였다. 수술 후 합병증은 둔상시 6례(19%), 관통상시 3례(25%)에서 발생하였다. 둔상의 경우 2례에서 사망하였고(6.3%), 관통상의 경우는 사망례가 없어 전체 사망률은 4.5%였다. 1례는 동반된 뇌손상으로 사망하였고, 1례는 내원 당시 쇼크 상태로 비장파열 및 신장파열이 있었으며 수술 후 패혈증 및 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